



전세계 교역과 경제는 동체

1. 다시금 강조하는 교역의 중요성

- 코로나19 이후 현 시점부터는 교역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동향과 연관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크기 때문.
- 전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은 밀접한 관련. 교역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큰 기여. 코로나19이후 교역량의 추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다시금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2. 총량 개념에서 글로벌 교역에 대한 평가

- 교역조건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한 나라의 교역을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물량지표와 가격지표를 동시에 확인.
-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물량지표와 더불어 가격수준을 가중한 부가가치기준 교역은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 회복세에 위치. 이는 교역물량의 회복보다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회복세가 더 빠름을 의미.

3. 전세계 교역에 선행하는 한국 무역지표

- 한국의 12월 수출은 전년비 +12.6%의 증가를 기록하여 현 시국이 무색할 만큼 긍정적 수준. 2020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5.4%를 달성.
- 향후 한국 수출에 있어서 부담요인은 가격조건, 즉 환율수준임. 주요 수출기업들의 향후 수출에 있어서 부담요인이 환율과 물류비용이라 언급. 향후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
- CPB 교역가격지수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가격조건 대비 신흥국의 가격조건은 2020년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 달러 약세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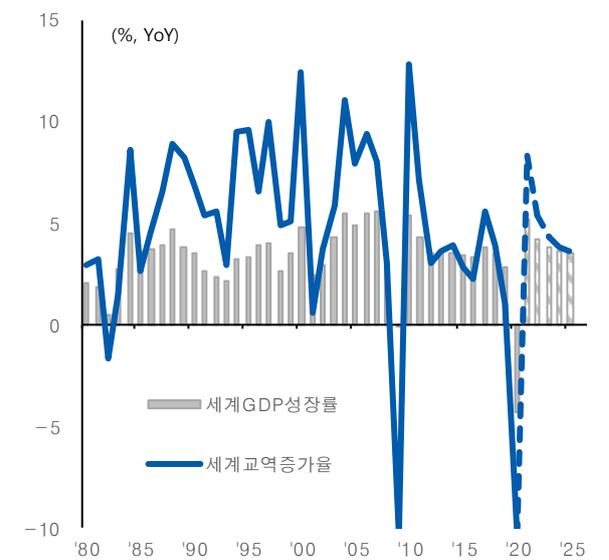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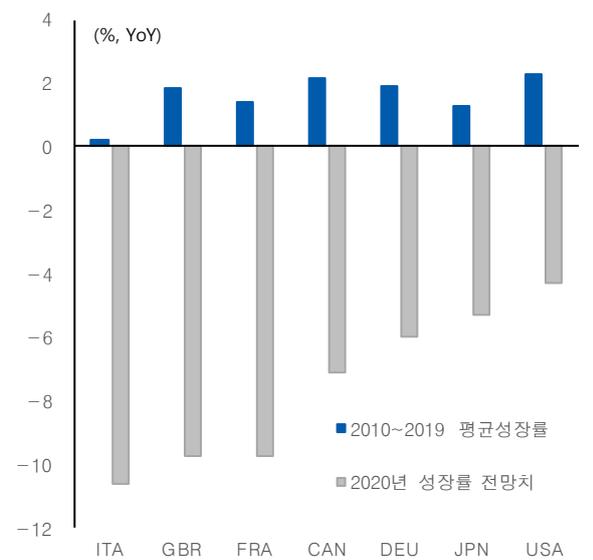
1. 다시금 강조하는 교역의 중요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 국가별 질병확산의 차이 및 기본적인 경제구조 환경에 따라 지난 2020년의 경제 흐름 파악 작업은 일관된 방향성이 있었다기보다는 국가별 차별적인 접근이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약 1년여 간 질병이 진행되면서 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경제 방향성은 내수 등의 지표를 통하여 확인이 된 상황으로 생각된다. 어떤 국가가 먼저 충격을 받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지표들로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교역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역지표는 각 국가별 특성에 기인한 움직임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동향과 연관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경제흐름에 있어서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전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도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급락하였던 만큼 금번 코로나19이후 교역량의 추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다시금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차트1] G7 국가의 지난 10년간 성장률 평균 대비 20년 성장률 둔화는 여행수지 등이 중요한 유로존 국가 위주 둔화. **[차트2]** 전세계 성장은 교역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향후 교역동향 변화를 살펴볼 필요.



자료: IMF,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총량 개념에서 글로벌 교역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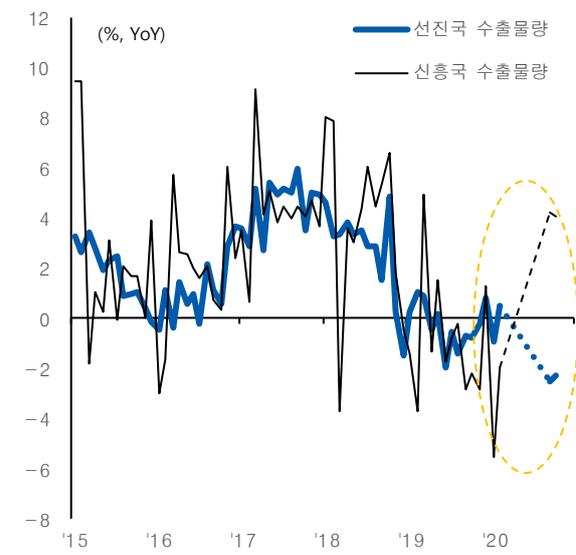
전세계의 수출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 CPB 에서 발표하는 World Trade Monitor 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대표적이다. 동 자료에서는 교역에 대한 물량(Volume)과 가격(Price) 지수를 전세계 및 선진국/신흥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확인 하는 지표는 물량지수인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가격지수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수출에서는 교역조건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한 나라의 교역을 통하여 창출 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전세계의 개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물량 지표와 가격지표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물량지표와 더불어 가격수준을 가중한 부가가치지표를 동시에 그려보면 몇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여년간 부가가치기준 교역이 증가한 시점이 글로벌 경제환경도 긍정적이었던 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량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겹쳐서 움직인 경험은 금번 코로나19 확산기간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고, 특히 부가가치기준 교역은 동 기간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 회복세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교역물량의 회복보다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회복세가 더 빠르고, 이는 가격 지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해서 코로나19의 일시적 효과라 볼 수 있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치 무시 후 선형 연결시 신흥국의 수출경기가 더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확인된다.

[차트3] 부가가치를 반영한 전세계 수출이 물량기준을 상회 하면서 성장세에 기여하는 국면으로 전환됨.



[차트4] 일시적 효과 제거시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수출물량 증가속도가 더 빠른 특징.



자료: CPB,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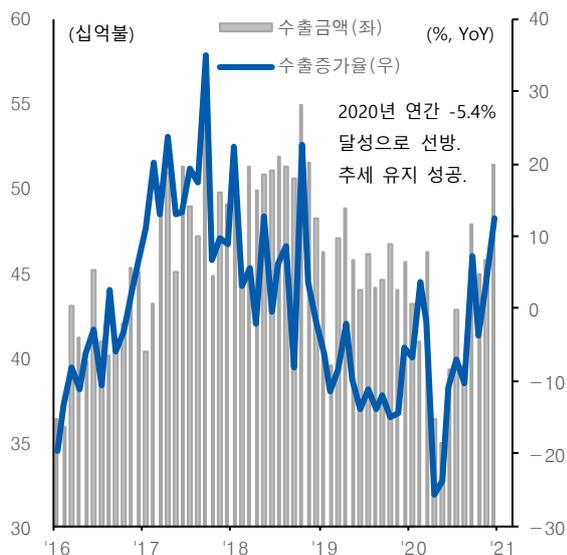
3. 전세계 교역에 선행하는 한국 무역지표

글로벌 교역에서 신흥국의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수출지표가 한국 지표인 만큼 당장의 수출경기를 잘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12월 수출은 전년비 +12.6%의 증가를 기록하여 현 시국이 무색할 만큼 긍정적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2020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5.4%를 달성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향후 한국 수출에 있어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격조건, 즉 환율수준이다. 현재 1100원대를 하회하고 있는 원달러환율을 감안하여 주요 수출기업들의 향후 수출에 있어서 부담요인이 환율과 물류비용이라 언급하는 만큼 부담되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는 교역이 긍정적 상황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은 앞서 언급한 CPB 교역가격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지수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가격조건 대비 신흥국의 가격조건은 2020년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최근 달러가치의 약세 등으로 인한 신흥국통화강세 움직임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수출물량의 회복과 단기 움직임만으로 교역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5] 12월 수출금액은 2018년 11월 이후 다시금 500억 불 수준을 회복하여 2020년 연간 -5.4%의 수출 감소.



[차트6] 교역조건에서 달러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신흥국의 가격조건이 선진국 대비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중.



자료: 관세청, CPB,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